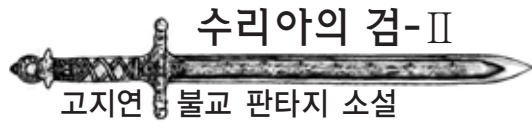


분명 내가 뭔가를 놓친거야. 그게 뭘까?



수리아의 검-II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6)

오두막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무니는 불을 찾아 켜기 위해 벽을 더듬거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찍 왔구나.”
무니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 영감이야?”
“그래. 잠깐만 기다리려구나. 종이버터가 떨어져서 불이 다 꺼져버렸거든.”

그리고 금방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오두막 안이 환해졌다. 이제 고작 하나의 램프에 불을 붙였을 뿐인데도 그랬다.

“어둠 속에서는 말이다. 하나의 작은 불빛만 나타나준다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나?”

밝아진 오두막이 새삼스럽다고 둘러보는 무니를 향해 유리 영감이 말했다.

“아니. 여기 있는 램프를 다 끈다고 해도 못 보는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뭘?”

당연하다는 말투였다. 마지막 램프에 불을 붙이던 유리 영감이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무니를 쳐다봤다. 그러나 아이의 시선은 오두막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데 쏠려있었다.

“거기 앉으려구나.”

무니는 유리 영감이 가리키는 의자에 앉아 본격적으로 오두막 안을 둘러봤다. 아침에는 정신이 없어 미처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신기했다. 무엇보다 난다에게 이야기 들었던 대로 책이 무척 많았다. 마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손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이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이 지역에는 유리 영감뿐일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여단이문 이 달려있는 책장이었다. 손잡이도 아주 특이했다.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어서 문까지 달아 두었을까. 무니가 고개를 가웃하는데, 유리 영감이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말이다. 이제부터 문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란다.”

무니의 인상이 금방 구겨졌다. ‘도대체 왜?’ 라는 표정이었다.

“당장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있단다. 하지만 지식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여기에서 꾸준히 쌓아놔야 하는 거란다.”

그는 무니를 바라보며 자신의 옆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그래도 무니는 여전히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았다. 이제 난다처럼 숙제 걱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그랬다. 그러자 유리 영감은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자구나. 어제 너희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무척 고생 해야 했던 일과 엄마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한 벌 정도로 말 이야. 이 게다가 칸타카는 너희를 옮기느라 아직도 탈진 상태란다.”

“아. 칸타카!”

무니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조랑말을 확인해보러 가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금은 쉬고 있으니까 괜히 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데리고 가도록 하렴.”

유리 영감이 그런 무니를 말리며 말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난다가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두 손에는 자두가 가득 담겨있었다.

“늦었구나.”

“미안해요, 할아버지. 집에서 나오려는데 세라가 자두를 들고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도 안 아픈데, 히히, 엄마가 할아버지랑 무니랑도 나눠먹으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난다는 가지고 온 자두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 세라가 아무래도 잘 좋아하는 게 확실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말에 유리 영감이 소리 내어 웃자, 무니도 웃고 말했다.

“어. 다들 왜 웃어요? 여기서 도대체 뭐가 웃긴데!”

난다의 얼굴이 빨개질수록, 두 사람의 웃음소리도 커져갔다.

또 겨울이 찾아왔다. 무니가 태어나고 나서 맞은 두 번째 겨울이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그날도 언제나처럼 아이들은 유리 영감네 집에 모여앉아 그가 읽어주는 책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니와 난다만이 이미 읽은 책이라 별 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고 화롯가 가장 멀리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진짜? 세라가 그랬어?”

난다의 시선이 세라의 옆모습을 향했다.

“응. 이번 네 생일에 자기가 떠준 목도리를 주겠다고 말야. 우리 엄마한테 와서 배우고 갔단니까.”

“그런데 왜 진작 이야기 안 했어!”

“개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뭐, 며칠 후면 금방 생일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어때, 기분 좋아?”

난다가 얼굴을 붉혔다. 무니는 그런 친구의 옆구리를 톡 치더니 킁킁 거렸다. “흠, 흠!” 유리 영감이 헛기침을 하며 무니와 난다에게 주의를 줬다.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 틈에서 두 아이만 탄생을 피우고 있어서 유독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는 무니와 난다에게 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왔다. 할아버지의 경고에 무니와 난다는 얼른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또 다시 소리 내어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유리 영감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완전히 푹 빠져 그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유리 영감이 난다에게 말했다.

“밤 먹고 오두막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버님, 난다 아빠 말이 길이 많이 얼었대요. 어쩐지 눈도 또 많이 내릴 거 같구요. 게다가 내일은 새해 첫날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유리 영감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래도, 길이 이렇게 어두운데, 작년에도 한번 눈에 갇힌 적 있지 않습니까?”

소년도 아내의 말을 거들었다.

“글쎄, 괜찮대도 그러는구나. 오늘은 달이 밝아 하늘을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야. 이런 날을 놓치면 아깝거든.”

“아버님, 오늘은 그름인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며느리를 본 유리 영감이 깔깔 웃었다.

“또,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셨군요.”

결국 부부는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다. 어리둥절한 난다는 할아버지가 어떤 일로 고집을 피우시는 것일까, 궁금해졌다.

같은 시간, 무니는 칸타카를 집 안에 들여놓고 있었다. 아무래도 바깥 날씨가 맘에 걸렸기 때문이다.

마야는 그런 무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칸타카를 묶어놓을 곳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탁자 위에 앉아 세라가 마무리를 부탁한 목도리를 손보기 시작했다.

“어. 난다한테 목도리 이야기 했는데, 무척 좋아하던걸.”

마야는 비밀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댔다.

“어차피 겨우 며칠 후인데, 뭐, 근데 난다는 정말 세라가 우리 마을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데 말이야.”

마야가 웃으며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여자애들은 아무튼 재미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난다는 여자애들이랑도 잘 어울린단 말이야. 나이가 많은 적든.”

순간, 엄마의 표정을 확인한 무니의 얼굴이 빨개졌다.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여자애들은 정말 재미없어!”

마야는 아들의 반응에 손에 든 목도리까지 놓으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다 또 시작된 두통 때문에 미간을 찌푸렸다. 언제나처럼 어떤 영상이 두서없이 번쩍번쩍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 보는 장면들이었다. 무니가 걱정스레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유리 영감한테 약 안 어울려?”

무니의 말에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보인 마야는 방금 떠오른 영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장면이었고, 사람이었다. 문득 오늘이 그름이라는 게 떠올랐다.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촛장은 집 앞에 나와 아무 것도 없는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름, 심어 낸 전 겨울 약초를 구한다며 나갔던 마야가 실종됐던 밤도 오늘처럼 짙을 같았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누프르산 여기저기를 뒤지는 내내



삽화 · 김홍인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가만, 누프르산이라고?’ 순간 촛장의 생각이 거기서 멈췄다. 지난 초여름에 무니와 난다가 실종됐을 때도 물론 떠올랐던 사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날의 사건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유리 영감은 분명 풀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다. 그 때문에 쓰러져버린 아이들을 칸타카가 힘겹게 데려온 것이라고 말았다. 분명 그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풀케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식물이다. 그런 것에 중독된 아이들이 바로 다음 날 회복되었다는 것이나, 칸타카처럼 작은 땅아지가 아이들을 두 명씩이나 운반해 왔다는 것도 이제와 따져보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분명 내가 뭔가를 놓친 거야. 그게 뭘까?’ 촛장의 머릿속에 다시 의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가만, 누프르산이라고?’ 순간 촛장의 생각이 거기서 멈췄다. 지난 초여름에 무니와 난다가 실종됐을 때도 물론 떠올랐던 사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날의 사건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유리 영감은 분명 풀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다. 그 때문에 쓰러져버린 아이들을 칸타카가 힘겹게 데려온 것이라고 말았다. 분명 그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풀케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식물이다. 그런 것에 중독된 아이들이 바로 다음 날 회복되었다는 것이나, 칸타카처럼 작은 땅아지가 아이들을 두 명씩이나 운반해 왔다는 것도 이제와 따져보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분명 내가 뭔가를 놓친 거야. 그게 뭘까?’ 촛장의 머릿속에 다시 의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가만, 누프르산이라고?’ 순간 촛장의 생각이 거기서 멈췄다. 지난 초여름에 무니와 난다가 실종됐을 때도 물론 떠올랐던 사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날의 사건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유리 영감은 분명 풀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다. 그 때문에 쓰러져버린 아이들을 칸타카가 힘겹게 데려온 것이라고 말았다. 분명 그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풀케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식물이다. 그런 것에 중독된 아이들이 바로 다음 날 회복되었다는 것이나, 칸타카처럼 작은 땅아지가 아이들을 두 명씩이나 운반해 왔다는 것도 이제와 따져보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분명 내가 뭔가를 놓친 거야. 그게 뭘까?’ 촛장의 머릿속에 다시 의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가만, 누프르산이라고?’ 순간 촛장의 생각이 거기서 멈췄다. 지난 초여름에 무니와 난다가 실종됐을 때도 물론 떠올랐던 사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날의 사건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유리 영감은 분명 풀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다. 그 때문에 쓰러져버린 아이들을 칸타카가 힘겹게 데려온 것이라고 말았다. 분명 그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풀케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식물이다. 그런 것에 중독된 아이들이 바로 다음 날 회복되었다는 것이나, 칸타카처럼 작은 땅아지가 아이들을 두 명씩이나 운반해 왔다는 것도 이제와 따져보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분명 내가 뭔가를 놓친 거야. 그게 뭘까?’ 촛장의 머릿속에 다시 의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p>불자 정보</p> <p>831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양재역에서 2분거리(지하철3호선) • 3층 건물중 2층 (약 15평) • 보증금 9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강남에 이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 현재 포교원 및 철학 <p>010-2090-4490</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울산시 공업담부근 • 3층 평수 89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3, 공양간 화장실2,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p>010-4554-5984 010-9753-1953</p>	<p>사찰화재보험</p> <p>전문가와 상담하세요</p> <p>◆ 가입시 필요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p>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p> <p>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p> <p>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p> <p>*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p>	<p>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p> <p>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p> <p>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로만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p> <p>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4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p>35 친절상담</p> <p>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p> <p>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p> <p>형산새마을금고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p>	
<p>암자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남 공주시 정안IC 3분거리 • 깊은 산 계곡 끝자락 상류 • 계곡물 흐르고 있음 • 전답 550평 • 가액: 평당 10만원 <p>010-4130-0606(주인직)</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안성 • 고속도로 IC 근접, 교통편리 • 평수 23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3억 5천만원 <p>011-687-6276 031)672-1150</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청주 상당구 시내 중심가 • 대지 95평, 건평 100평 • 법당 35평, 방4, 거실, 화장실 • 미륵부처님 1분, 삼층석탑 1 • 삼존불, 108후불 • 산신각, 산업융전기보일러 • 가액: 2억 8천만원 (절증가) • 현재운영중 <p>010-8121-3334</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남양주 북한강주변 • 대지: 110평 • 일체시설완비 • 산신각1동, 주지실, 한옥법당1동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p>011-289-2719</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임야 500평 • 밭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입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절증)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p>011-373-0697 011-9901-3530</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울진 • 대지 800평(주차장완비) • 대웅전 20평, 산신각 4평, 요사채 18평 • 가액: 2억 8천만원 <p>054)782-0659 011-9571-6559</p>